

교과서독해

“knowledge is power.”

Francis Bacon



철학 편



PART 01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까? (서양철학(1): 존재론)

keyword: 형이상학, 실재론, 플라톤, 이데아, 버클리

PART 02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까? (서양철학(2): 인식론)

keyword: 인식론, 경험론, 합리론, 관념론, 데카르트, 칸트, 베이컨

PART 03

진리는 어떻게 탐구할까? (서양철학(3): 방법론)

keyword: 명제, 귀납논증, 연역논증, 개연성, 필연성, 반증, 논증의 참 · 거짓,
타당한 논증, 건전한 논증



PART 04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동양철학(1): 유가사상)

keyword: 천명, 공자, 인(仁), 덕치, 효제충신(孝悌忠信), 맹자, 고자, 성선설,
성무선악설, 사단(四端)

PART 05

법과 규범, 필요할까? (동양철학(2): 도가사상, 법가사상)

keyword: 장자, 노자, 도(道), 제물(齊物), 물아일체, 순자, 성악설(性惡說),
예(禮)

CONTENTS

PART 06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동양철학(3): 성리학, 실학)

keyword: 주희, 성리학, 이(理) · 기(氣), 왕양명, 양명학, 격물치지(格物致知), 치양지(致良知), 정약옹, 실학, 성기호설



예술


PART 07

어떤 그림이 더 아름다운가? (예술론)




keyword: 고희, 추상화, 재현, 원근법, 칸트, 취미론, 순수예술, 아우라 (Aura), 레디메이드(Ready-made), 팝 아트(Pop Art)




GUIDE

 핵심원리 뽑기

실재론	• 의식이나 주관으로부터 독립된 실체가 존재한다.
경험론	• 의식이나 주관으로부터 독립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인식·지식의 근원은 오직 ()에서만 찾을 수 있다.
행이상학	• () 세계 너머의 궁극적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핵심 확인하기

①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본다. ○ X

② 플라톤은 모든 사물의 본체가 있다고 본다. ○ X

③ 경험론자들은 사물이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도 존재한다고 본다. ○ X

④ 데카르트는 인간의 주관이나 인식 바깥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본다. ○ X

⑤ 인식론은 전리와 지식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 X

⑥ 형이상학은 경험을 통해 진리를 증명하는 학문이다. ○ X

 고난도 어휘

①

- **실재(實體)** : 사물(물상)이나 개념이 아닌 현실의 경우나 형편
- **실체(實體)** : 실체로 존재함,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세계

Training

- 그들은 ☐ 실체 ☐ 실체 없이 따로 떨어져 있다.
- 그의 소를 속여 나오는 경우는 ☐ 실체 ☐ 실체의 인물이자.

②

- **개별적** : 여러 중에서 하나로 따로 나타나 있는
- **보편적** : 두루 널리 미치는,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공유하는

Training

- 의 사상의 ☐ 개별적 ☐ 보편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절대필수 학자

“버클리”
George Berkeley
1685 – 1753





에러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라도 <교과서독해>라는 책을 보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의 할자가 눈에 맺힌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에러론들은 현상인들이 펼치는 쇼를 보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현상인이 TV에 비친 화면, 즉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철학의 용어로 **표상(表象, representation)**, 혹은 **관념(idea)**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지각은 두 가지 즉 **표상(현상)**과 그것을 의지하는 것(실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버클리는 표상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외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버클리는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출 확인하기 1

 **주관적** 실재론,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내가 생각하는] 사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대상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이 경계 존재하는지, 혹시 이것들이 감각의 관용은 아닌지, 내가 있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해 할 수 있는가? 네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

주어진 연의 설명을 읽어 보라.
사물의 경우 문제는 더 분명하다. **①**이런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경이**, 즉 내가 **그리 할 소리를 낼 때에 갖는 생각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지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각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채택하는 한에 따르면, 나

3. 핵심원리 뽑기

‘교과서 확인하기’에서 다룬 핵심 제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핵심어를 채워보고 밑에 제시된 거꾸로 정답을 확인합니다.

4. 핵심 확인하기

‘교과서 확인하기’의 논지를 잘 이해했는지, OX문제를 통해 확인합니다.

5. 고난도 어휘

해당 단원의 주요 어휘들로서, 혼동하기 쉬운 유사 어휘 등을 선별해 놓은 코너입니다.

○ **Training:** 어휘 학습을 위해 실어놓은 단답형 문제들입니다. 기출 빈도가 높은 어휘이니 객관식 문제들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오답풀이를 정확히 해둡니다.

6. 절대 필수 학자

해당 단원과 관련된 학자의 입장 및 이론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국어영역의 철학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학자들이니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해 둡니다.

7. 기출 확인하기

실전 문제를 풀며 앞에서 배운 지식들을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국어 등급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마술램프를 꿈꾸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옷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고 집도 내주는 마술램프. 우리는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마술램프가 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술램프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글을 술술 읽어낼 수 있는 기막힌 독해 비법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바람은 마치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으니 마술램프 하나만 다햐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 출제되는 불수능 국어영역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문제집을 풀기도 바쁜데 독서까지 하라니…….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읽어야 할 책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과학, 경제, 철학 영역에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어려운 제재들은 바로 교과서에 실려 있던 것들입니다. <교과서 독해>를 접하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국어 시간에 갈고 닦은 독해 실력으로 과학, 경제, 윤리 등 타 과목 교과서의 본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배경지식은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더욱 탄탄히 다져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쉽게 얻은 것,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쉽게 잃기 마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정직하게 나아가 봅시다.

저자 일동

PROLOGUE





서양철학

PART 01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까? (서양철학(1): 존재론)

keyword: 형이상학, 실재론, 플라톤, 이데아, 버클리

PART 02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까? (서양철학(2): 인식론)

keyword: 인식론, 경험론, 합리론, 관념론, 데카르트, 칸트, 베이컨

PART 03 진리는 어떻게 탐구할까? (서양철학(3): 방법론)

keyword: 명제, 귀납논증, 연역논증, 개연성, 필연성, 반증, 논증의
참 · 거짓, 타당한 논증, 건전한 논증



교과서 확인하기 1

수능국어
필수어휘

*실재: 실제로 존재함

*명목: 겉으로 내세우는 이름, 구실
이나 이유*도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이해하기 Link

* 인식론: 진리, 또는 지식의 근
거와 특징을 밝히는 학문* 경험론: 인식·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입장* 관념론: 실재는 정신(관념)으
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이론* 방법적 회의: 확실한 인식만
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인식
에 대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의심 (인식론, 경험론, 관념론,
방법적 회의 모두 2장에서 자
세히 다룬다.)

실재론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존재론적 실재론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론적 실재론이다. 존재론적 실재론은 유명론과 대립되고, 인식론적 실재론은 경험론이나 관념론과 대립된다. 따라서 실재론이라는 개념을 논할 경우 존재론적 차원에서 논하는 것인지, 인식론적 차원에서 논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다.

sum-up 1

존재론적 실재론은 유명론과 대립되고, 인식론적 실재론은 관념론과 대립된다.

존재론적 실재론의 대표주자로 플라톤을 들 수 있다. 플라톤은 사물들의 이데아가 모두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에 의하면 책상의 이데아만이 참된 것일 뿐, 내 방에 있는 책상, 도서관에 있는 책상, 학교에 있는 책상 등의 개별적인 것들은 모두 불완전한 것들에 지나지 않으므로 참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유명론에서는 사물에 붙여진 이름이 ***명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자.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명론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편의상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붙임으로써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상, 의자, 연필 등의 사물도 모두 마찬가지다. 유명론자들은 개별적인 사물들만 존재할 뿐 책상, 의자, 연필이라는 보편적 존재는 없다고 단언한다.

sum-up 2

존재론적 실재론과 대립되는 유명론에서는 개별적인 사물들만 존재할 뿐 ()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식론적 실재론의 대표주자로 데카르트가 있다. 데카르트 덕분에 존재론적 실재론은 인식론적 실재론으로 전환될 계기를 맞게 되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바깥에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하는 실재론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초점을 존재론이 아닌 인식론에 두고 있다. 그는 실체를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고, 물질의 영역이 정신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이 인간의 **방법적 회의**를 통해 ***도출**되었다고 선언한다.

sum-up 3

데카르트는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실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식론적 실재론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실재 자체를 부정한다. 우리 밖에는 실제로 사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관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sum-up 4 인식론적 실재론을 비판하는 ()에서는 실재 자체를 부정하며 ()을 통해 얻게 되는 사실만을 인정한다.

supplement

형이상학이란 경험 세계 너머의 궁극적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플라톤 역시 형이상학자인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미신적인 주장과는 차원을 달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 이론과 같은 신뢰성을 주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은 경험과 관찰에 의한 검증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반면, 형이상학에서는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고대, 중세 시대 철학의 탐구 주제는 주로 영혼불멸, 신의 존재, 인간의 자유, 존재·비존재 등과 같은 초월적이고 초경험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즉 형이상학은 개별적인 존재를 초월하여 존재 일반의 성질 혹은 구조를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인 것이다.

오른쪽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의 일부 그림이다. 왼쪽의 플라톤은 형이상학에 관한 저작인 <대화편>을 손에 들고 더 높은 차원의 이상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반면, 오른쪽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손에 든 채 땅을 가리키며 현실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플라톤은 존재의 본질을 초월적인 이데아 세계에서 찾은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본질이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문을 연구하는 데 플라톤은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중시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각과 경험을 강조하였다.



이해하기 Link

철학에서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이라는 3가지 영역을 연구한다. 존재론은 우주의 궁극적 본질이나 실재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 이론이며, 인식론은 진리와 지식의 근거를 밝히는 이론이다. 방법론은 지식의 원리들을 분석해 명제로 만들어 체계화하는 분야의 학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은 하나의 범주로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론, ~론이 막 튀어나오니 약간 혼동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절대 무슨무슨 '론', 무슨무슨 '주의'라는 말을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논의이기 때문이다.





핵심원리 뽑기

- 실재론 • 의식이나 주관으로부터 독립된 실재가 존재한다.
- 경험론 • 의식이나 주관으로부터 독립된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인식·지식의 근원은 오직 (①)에서만 찾을 수 있다.
- 형이상학 • (②) 세계 너머의 궁극적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① 오직 ② 오직



핵심 확인하기

- ①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이 하나라고 본다. O X
- ② 플라톤은 모든 사물의 보편적 존재가 없다고 본다. O X
- ③ 경험론자들은 사물이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도 존재한다고 본다. O X
- ④ 데카르트는 인간의 주관이나 인식 바깥에 사물이 실재한다고 본다. O X
- ⑤ 인식론은 진리와 지식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O X
- ⑥ 형이상학은 경험을 통해 진리를 증명하는 학문이다. O X
- ⑦ 형이상학에서는 경험과 관찰에 의한 검증 가능성을 중시한다. O X



고난도 어휘

1

- **실제(實際)**: 사실(상상이나 거짓이 아닌 현실)의 경우나 형편
- **실재(實在)**: 실제로 존재함.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세계

Training

1. 그들은 (□실제 □실재) 만난 일이 별로 없었다.
2. 그의 소설 속에 나오는 '철수'는 (□실제 □실재)의 인물이다.

2

- **개별적**: 여럿 중에서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 **보편적**: 두루 널리 미치는,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는

Training

1. 각 사람의 (□개별적 □보편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2. 민족에 대한 존엄은 변할 수 없는 (□개별적 □보편적) 윤리이다.
3. 그 시절의 혼인 풍습도 지방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신부의 족두리 낭자만은 지금의 면사포만큼이나 (□개별적 □보편적)이었다.

3

- **개별적**: 여럿 중에서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 **종합적**: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 합한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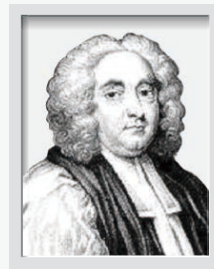
1.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개별적 □종합적)으로 심문했다.
2. 논술문을 쓸 때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같은 요소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서 전체를 파악하는, 이른바 (□개별적 □종합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절대필수 학자

“버클리”

George Berkeley
1685 ~ 1753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마도 <교과서독해>라는 책을 보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의 활자가 눈에 맺힌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이 펼치는 쇼를 보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연예인이 TV에 비친 화면, 즉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철학적 용어로 표상(表象, representation), 혹은 관념(idea)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지각은 두 가지, 즉 표상(관념)과 그것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버클리는 표상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외부 대상은 없으며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 가령 여러분 앞에서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을 바라본 다음 반복적으로 눈을 깜빡거리보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은 여러분이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눈을 감으면 선생님의 모습은 사라진다. 표상은 선생님의 모습에 해당한다. 그리고 외부대상은 선생님 그 자체에 해당한다.

표상과 외부 대상의 차이는 바로 여러분에게 의존하는지의 여부이다. 선생님 그 자체의 존재는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의존한다. 철학에서는 여러분 각자와 같이 지각하는 것을 지각 주체라 부른다. 그럼 우리는 표상은 지각 주체에 의존하지만, 외부대상은 지각주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버클리가 외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듯 지각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각 주체에 의존한다.

교과서 확인하기(1) 마지막 문단을 다시 살펴보자. 버클리가 바로 ‘영국 경험론자’ 중의 한 사람이다.

교과서 다시보기

인식론적 실재론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실재 자체를 부정한다. 우리 밖에는 실제로 사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관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01 버클리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 넣어 보자.

"존재하는 것은 ()된 것이다."

02 '태양'의 속성에 대해 버클리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양은 실재하는 외부 대상이다.
- ② 태양이 지닌 뜨거운 속성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 ③ 태양의 뜨거운 속성은 지각 주체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것이다.

- 주관적: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 객관적: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교과서 확인하기2



수능국어 필수어휘

***전형(全形):** 사물 전체의 모습이나
형상. 완전한 형체

***착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음

***관념:** 어떤 대상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

***모사(模寫):** 사물의 형체를 그대로
그림

***가시(可視)성:**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질

***규정:**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예술가와 구두장이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들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를 특별히 예술가라는 칭호를 붙여 구두장과이와 재단사 같은 장인들과 구별한다. 예술가는 작품 안에 특별한 주제를 담아 ‘창작’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예술가를 장인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물들이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예술가가 만든 작품은 이데아의 그림자인 현실세계를 모방함으로써 이데아에서 한 걸음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sum-up 1 플라톤에 의하면 ()를 모방한 모든 사물들은 불완전한 것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보편적 정의에 ***착안**하여,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의 공통된 ***전형**, 즉 모범이 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이데아’라 불렀다.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상들은 각기 재질과 모양이 다른 개별적 사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물들을 통틀어 ‘책상’이라는 공통의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까닭은 그것들 모두가 공통된 이데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sum-up 2 모든 사물들은 보편적 실체인 ‘이데아’를 지닌다.

플라톤은 영혼이 지향하는 이데아 세계와 인간이 실제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세계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는 참된 실재가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이자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 세계이다. 반면,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변화의 세계이므로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인간이 극복해야 할 세계이다.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의 모방이요 그림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따라서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수행하는 소수의 철학자만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sum-up 3 이데아론에 따르면 변화하는 ()가 아닌 불변하는 ()를 지향해야 한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는 보편적인 진리의 근원이자 탐구의 대상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계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불변하는 관념의 세계이므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사**한 것이므로 이데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sum-up 4 이데아 세계는 (□이성적 □감각적)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는 다양한 이데아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善)의 이데아를 최고의 이데아로 보았다. 선의 이데아는 마치 자연을 비추는 태양과도 같다. 태양이 모든 것에 생명과 *가시성*을 부여하듯이,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에 본질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데아의 존재 이유와 그것의 좋은[善] 상태를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선의 이데아에 의지하여 존재하지만, 선의 이데아는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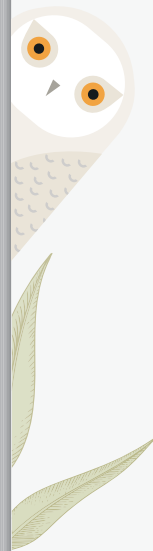
sum-up 5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의 근본이며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supplement

예를 들어 정삼각형이 되려면 세 변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밀한 자와 미세한 연필을 가지고 그려도 세 변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삼각형과 다른 삼각형을 구분해낸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람마다 정삼각형을 조금씩 다르게 그리더라도 그것이 본뜨고 있는 이데아는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러한 정삼각형의 이데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비록 이데아의 모사품이지만 그 사물이 어떤 이데아를 본뜨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를 동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동굴이고, 우리는 동굴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동굴 안쪽 벽만을 바라보고 있는 죄수와 같다. 우리 뒤, 머리 위쪽에는 햇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앞으로 각양각색의 인형들이 지나 가면, 우리들은 동굴 벽에서 그 인형들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동굴의 비유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인간은 사슬에 묶여 실제 대상의 그림자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외에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데아의 그림자를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앎은 참된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 허상에 불과한 이데아의 복사본에 대한 앎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감각적 지각에 의한 지식은 근거가 약한 억측과 같은 견해, 즉 억견(臆見, doxa)이라 부르고,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원불변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고 부름으로써 두 가지를 구분하였다. (동굴의 비유와 관련된 내용은 절대필수 학자 "플라톤"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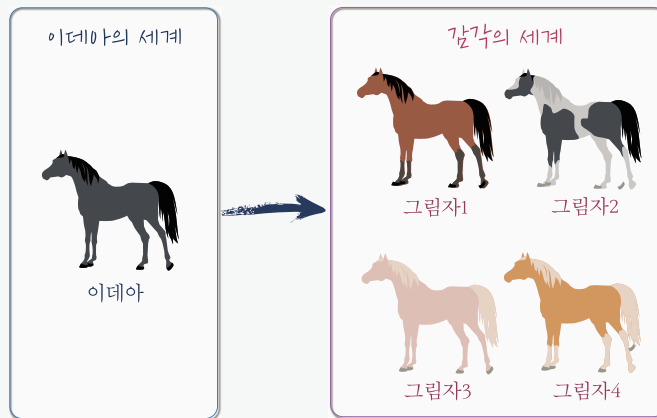




핵심원리 뽑기

이데아

- 순수한 (□이성 □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의 원형



이유



핵심 확인하기

※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에 O, 적절하지 않은 것에 X표 하시오.

- 1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의 근본이다. O X
- 2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O X
- 3 이데아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O X
- 4 이데아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을 갖는다. O X
- 5 공통된 종류의 개개의 사물마다 다른 이데아를 지니고 있다. O X



고난도 어휘

1

• 이성(理性):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진위(眞僞), 선악(善惡)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 감각(感覺): 눈, 코, 귀, 혀, 살갓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Training

1. 그는 사고로 하반신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2. 그는 오관(五官) 중 다른 감각 기관은 다 자면서도 청각만은 늘 깨어 있다.
3. 그는 이성보다는 본능을 따르는 사람이다.
4. 순수한 이성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논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5. 과학은 합리적인 것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성을 잃은 인간에게 칼을 쥐어준 결과가 되어버렸다.

2

• 불변성(不變性): 변하지 않는 성질

• 가변성(可變性):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

Training

1. 민족성이 고정된 것이라면, 그 (□불변성 □가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미인의 기준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변성 □가변성)을 지닌다.

3

• 초월적: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 현실적: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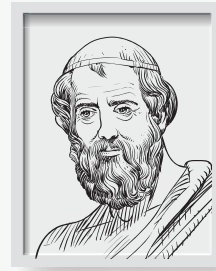
1.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초월적 □현실적)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2. 그는 계집질과 도박으로 그의 육체적이고 (□초월적 □현실적)인 고통을 덮어 보고자 했다.



절대필수 학자

“플라톤”

Plato
BC 427~ BC 347



다음은 플라톤이 자신의 이데아론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동굴의 비유’이다. 이 비유가 위에서 살펴본 이데아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보자.

“지하 동굴에는 어릴 적부터 팔다리와 목이 묶여 동굴의 입구를 등진 채 살아가는 죄수들이 있다. 이들은 동굴의 앞쪽만을 볼 수 있도록 묶여있다. 뒤쪽 멀리에서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높은 담장이 있고, 그 담장 너머에서는 사람들이 인공적인 인물상, 동물상 등을 담 위로 쳐들고 지나다닌다. 죄수들은 불빛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벽에 비친 상(像)들의 그림자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묶여 있던 줄에서 풀려나 불빛 쪽을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눈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눈은 불빛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동굴을 탈출하면 그는 동굴 밖의 환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플라톤 『국가』中

교과서 다시보기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변화의 세계이므로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인간이 극복해야 할 세계이다.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의 모방이요 그림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따라서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수행하는 소수의 철학자만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다음을 상징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각각 찾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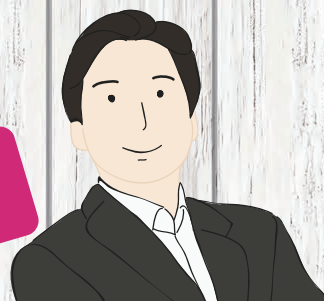
- ① 시각을 통해 드러나는 사물:
- ②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의 원인:
- ③ 탐구와 성찰을 수행하는 철학자: **불빛을 바라본 사람**

벽에 비친 그림자 동굴 안의 죄수들 동굴 밖의 세상 불빛을 바라본 사람

교과서 다시보기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는 보편적인 진리의 근원이자 탐구의 대상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계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불변하는 관념의 세계이므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사한 것이므로 이데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박재형샘의 배경지식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녔는데, 이것은 그들의 고유한 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것에 비추어 그것과 멀리 떨어진 것으로서 예술을 보았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현실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가급적 인정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를 통해 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소크라테스: 여기에 세 개의 침대가 있네. 첫째는 천연의 것으로 이것이 신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네. …… 다음은 목수가 만든 침대라네. …… 셋째는 화가가 그린 침대라네. 화가의 경우는 어떻겠나? 창조자 혹은 제작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글라우콘: 부를 수 없지요. ……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렇지. 실제로부터 세 단계나 열등한 것을 만드는 자이므로 모방자라고 해야하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모방은 인간의 정신에 즐거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모방(mimesis)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도 인간이 가장 모방을 잘하며, 처음에는 모방에 의하여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대하여 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사실은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아주 보기 흉한 동물이나 시체의 형체처럼 실물을 볼 때면 불쾌감만 주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정확하게 그려 놓았을 때에는 보고 쾌감을 느낀다.



"모방(mimesis)의 의미"

참고로 모방은 일반적으로 원상과 비슷한 모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술에서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 (1) 다른 예술가의 제작을 모범으로 삼아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 (대상을 모방하는 경우)
- (2)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모방하여 그것과 같은 모양의 것을 제작하는 것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

고전적 예술의 모방이 권장되는 것은 전자의 의미이며, 예술이 현실 또는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의 의미이다.



이상적(理想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

현실적(現實的):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

모방(mimesis): 다른 예술가의 작품이나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과 같은 모양의 것을 제작하는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감각하는 사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책상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시 이것들이 상상의 산물은 아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 가능성이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꿈의 가설보다는, 나의 감각들은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이 나에게 작용하여 만들어 낸 것들이라는 ‘상식의 가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을 더 잘 설명한다. 개 한 마리가 한 순간 방 한편에서 보였다가 잠시 후 방의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그것이 처음 위치에서 일련의 중간 지점들을 차례로 통과하여 나중 위치로 연속적인 궤적을 따라서 이동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개가 감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면 내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꿈의 가설에 따르면 그 개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동안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위치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해야 한다.

④그 개가 내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내 경우에 미루어 그 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다음 끼니 때까지 어떻게 차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도 점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따라서 나의 변화하는 감각 경험은, 실재하는 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단지 나에게 감각되는 색깔과 형태들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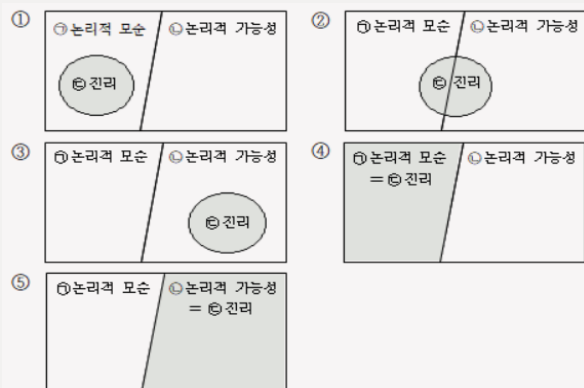
주하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람의 경우 문제는 더 분명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생각, 즉 내가 그러한 소리를 낼 때에 갖는 생각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는 원칙에 따르면, 나 자신과 나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 나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상식의 가설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

01 ㉤와 ㉥의 공통된 추론 방식은?

- ① 사람들의 말에 기대어 추측하였다.
- ②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하였다.
- ③ 가정을 세우고 그 귀결을 검토하였다.
- ④ 직관을 통하여 사례의 본질에 도달하였다.
- ⑤ 알려진 진리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연역하였다.

02 (가)의 설명에 따를 때,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03 윗글(A)과 <보기>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위 글의 논증을 접하기 전부터, 반성 능력을 갖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 ① (A)는 감각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B)는 감각을 본능적인 것으로 본다.
- ② (A)는 감각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지만, (B)는 믿음을 통하여 반성에 도달한다.
- ③ (A)는 상식을 확고한 사실로 간주하지만, (B)는 상식에 대하여 회의를 제기한다.
- ④ (A)는 합당한 가설을 찾는 데 실패하지만, (B)는 그러한 가설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 ⑤ (A)는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논하지만, (B)는 그러한 믿음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인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다/없다’라는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엇인가가 ‘좋다/나쁘다’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다/없다’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플라톤의 관점에는 무엇이 ‘있다/없다’라는 존재론적 판단과 무엇이 ‘좋다/나쁘다’라는 가치론적 판단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즉 플라톤에게 존재론적으로 ‘있다/없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특정한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있음’의 ‘정도’로 보았다. 이때 ‘있다’에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재성의 정도와 ‘가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덜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반대로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인 ‘현상’은, 이데아에 비해 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 모방을 통해 현상은 이데아의 본질을 나누어 갖게 된다. 그런데 현상은, 영원불변한 존재인 이데아의 본질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에 대해 플라톤은 ‘관여(關與)’ 또는 ‘임재(臨在)’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이때 ‘관여’와 ‘임재’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

를 ‘임재’의 정도라고 한다.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의 현상들이 이데아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또는 이데아가 개개의 현상들에 얼마나 ‘임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관여’ 혹은 ‘임재’의 정도가 그 사물의 존재론적이지 동시에 가치론적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의 이데아가 지닌 본질 중의 하나가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라면 경주에서 빨리 달리는 말일수록 그렇지 못한 말들보다 이데아에 대한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처럼 현상들에는 관여나 임재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존재론적 판단과 가치론적 판단을 하나로 여기는 플라톤의 사유 방식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유 방식을 반영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서구의 고대와 중세의 사유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정 이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비교되는 두 대상을 제시한 후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고 있다.
- ③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특정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02 윗글의 이데아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완전하면서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 ② 존재론적으로 모든 현상에 비해 가장 실재하는 것이다.
- ③ 관여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로서 영원불변한 성격을 지닌다.
- ④ 현상이 모방하는 대상이자 현상에 임재의 정도가 결정되는 기준이다.
- 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낼 때 창조자가 취하는 본이다.

03 윗글의 '플라톤'과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보기**

㉠라이프니츠는 세상의 창조자인 신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그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기에 유한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신은 모든 사물의 근거로서 무한한 존재이다.

- ① ㉠가 신이 창조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유한성은 플라톤의 '덜 존재한다'를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② ㉠가 말한 신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할 때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데미우르고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군.
- ③ 플라톤과 ㉠는 모두, 창조자와 존재들 간의 닮은 정도에 주목하고 있군.
- ④ ㉠와 달리, 플라톤은 창조자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로 보고 있군.
- ⑤ 플라톤과 달리, ㉠는 존재의 완전성을 정도의 문제로 파악했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는가 불변한단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02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MEMO



교과서 확인하기 1

수능국어 필수어휘

*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주제: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인식론은 ‘인간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지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을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지식은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신뢰할 수 없다. 우리의 인식이 정당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신뢰할 수 없다. 가령 청와대를 가보고서 ‘청와대의 지붕은 파랗다’라는 지식을 얻었다고 해 보자. 그 지식이 올바른 것이라면 실제 청와대의 지붕은 파랑색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고서 얻은 앎의 내용과 실제 대상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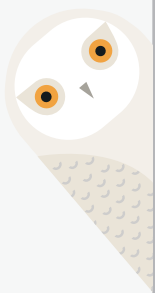
sum-up 1 ()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경험한 내용과 실제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청와대의 지붕을 보았을 때, ‘나’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생긴 건물의 파란색 지붕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실제 대상과 일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다시 한 번 보아야 한다. 하지만 대상을 다시 한 번 본다고 해서 대상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얻었을 뿐인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구나 대상의 이미지만을 얻을 수 있을 뿐 대상 자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정말 대상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sum-up 2 내가 대상을 보고 얻은 이미지들이 대상의 본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나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적인 대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꿈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다. 하지만 꿈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고, 신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도 아니라면 심술궂은 악마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나’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도 이미지로밖에 알 수 없다. 심술궂은 악마가 있다면 있지도 않은 내 모습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sum-up 3 외부의 대상을 비롯하여 심지어 ‘나’조차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의 가정에서 속이는 존재가 심술궂은 악마라고 한다면, 속는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결국 '내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회의**라 할 수 있다. '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설사 악마에게 속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영망진창의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sum-up 4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절대적인 지식이다.

이해하기 Link

2강 교과서확인하기(1)의 본문은 인식론의 문제와 관련된 데카르트의 입장을 옮겨놓은 글이다. 뒷장의 '절대필수학자'를 참고하자.

supplement

방법적 회의란 데카르트가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인식을 제거하고 확실한 인식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인식에 대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의심을 말한다. 즉 확실한 인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확실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해 봄으로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확실한 인식을 쌓아가려는 방법인 것인데, 그의 대표 저서인 『방법서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런 학문의 난제를 모두 검토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방법이 평하는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이런 학문의 원리는 모두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철학에 있어 나는 아직 아무런 토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선 철학에 있어 확실한 원리를 설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이때 나로서는 숙단과 편견을 가장 경계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스물세 살이던 나는 좀더 성숙한 나이가 된 다음에 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나는 전에 받아들이고 그릇된 의견을 모두 정신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고, 훗날 추리의 재료로 삼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규정된 방법을 더욱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

(『방법서설』,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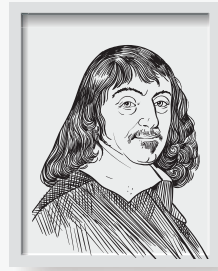




절대필수 학자

“데카르트”

Rene Descartes
1596 ~ 1650



데카르트는 중세의 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의심이라는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남는다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러한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한다.

데카르트는 지식의 유형을 감각지식, 일반지식, 보편지식으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오감을 통해 느끼는 감각지식은 우리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지만 우리를 잘 속인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풍성한 사과나무를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꿈속에서 나는 오감을 통해 사과를 인지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꿈속에서 본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둘째, 자연과학에서 얻은 일반지식 역시 진리가 아니다. 일반지식의 경우 귀납적으로 정리된 지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 예컨대 모든 사람이 백조는 흰색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에서 흑조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한 생태학자가 흑조를 발견하게 되었다 가정해보자.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으로 인해 오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지식 역시 진리일 수 없다.

셋째, 기하학을 통해 얻은 보편지식은 자연과학과 달리 연역적으로 정리된 지식으로 신빙성이 높다. 예컨대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이 180도이며 직선 위의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1+2$ 는 3이 아니라 4와 5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악마가 나를 속여 $1+2$ 는 3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지식조차 진리일 수 없다. 이처럼 감각지식, 일반지식, 보편지식 모두 의심의 요소를 해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방법적 회의’ 뿐이다. 내가 이전에 참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데카르트는 의심의 여지없는 단 하나의 진리까지 회의적으로 검토해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데카르트는 회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이다.



교과서 다시보기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의 가정에서 속이는 존재가 심술궂은 악마라고 한다면, 속는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결국 ‘내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회의라 할 수 있다. ‘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설사 악마에게 속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01 데카르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을 때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 넣어 보자.

"절대적 진리는 (□경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02 다음 중 데카르트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골라 보자.

- 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정해진 진리는 없다.
- ②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신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 ③ '나'라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인 지식이다.
- ④ 속단과 편견으로 지식을 판단하는 태도는 바르지 않다.
- ⑤ 논리적으로 도출해낸 지식은 절대적 지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03 감각지식, 일반지식, 보편지식 중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말해 보자.

- 옴의 법칙에 따르면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며 저항에 반비례한다.
-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려온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다.
- 어제 아침에 사람들이 대궐 앞에 모여 큰 소리로 아우성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교과서 확인하기 2



수능국어 필수어휘

***희랍:** 고대의 '그리스'를 가리킴

***소박하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

***신빙성:**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

이해하기 Link

귀납법: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구 방법. 특히 인과 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됨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근대의 인식론은 실재론과 관념론의 대립, 또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으로 크게 나뉜다. 실재론과 관념론의 대립은 인식의 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대립이고,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은 인식의 주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대립이다. 인식 대상이 명백히 우리의 바깥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재론이며, 반대로 인식 대상이 우리 바깥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며, 오로지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관념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관념론이다.

sum-up 1 실재론과 관념론에서는 ()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리가 인식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근거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는 주장을 합리론, 이와 달리 인식 근거를 인간의 경험에서 찾는 주장을 경험론이라 한다. 근대 철학의 의미를 '주체의 발견'이라고 하는 점에서 '인식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실재론과 관념론의 대립이라는 구도보다는 인식의 주체를 중심으로 한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 구도가 근대 철학을 설명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

sum-up 2 합리론과 경험론에서는 인식의 ()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이 크게 부각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지만, 그 본원은 이미 고대 ***희랍**에서부터 발견된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 사이의 다툼에서부터 이를 엿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영원불변의 참된 진리를 주장했지만 소피스트들은 이런 진리를 부정한다. 모든 것은 인간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판별될 뿐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설파하기도 했다.

sum-up 3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은 고대 희랍에서부터 발견된다.

근대의 경험론은 주로 영국을 무대로 펼쳐졌다. 영국 경험론자의 대표주자인 베이컨은 ***소박한** 차원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귀납법**으로 개별적인 경험적 사실들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로크는 인간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없으며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관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관념은 태어난 후 얻는다.

sum-up 4

경험론에서는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이성 □경험)을 중시한다.

이와 반대로 대륙에서 발전한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 이 이성은 못하는 것이 없다. '1+1=2, 34+56=90'이라는 간단한 진리부터 시작해 극도로 복잡한 온갖 수학적 이론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성 덕분이다. 이성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온갖 진리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근거다. '856989 × 874123 = 749113795647'이라는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도 간단히 알 수 있다. 오히려 경험을 통해 확인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결과의 ***신빙성**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sum-u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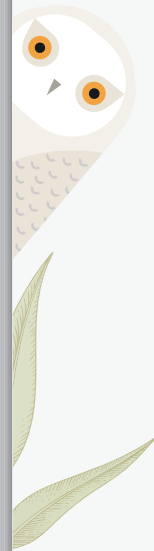
합리론에서는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이성 □경험)을 중시한다.

supplement

소피스트(Sophist)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그리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철학사상가이자 교사들이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변술을 강조하였으며, 진리와 정의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다.

소피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 동안의 철학이 자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였다. 이들의 강연은 현실 세계에서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그들 스스로도 세속의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둘째, 인간 사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인간 사고의 불완전함과 변동성은 그로부터 나온 제도, 윤리, 정의 또한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설득의 도구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피스트의 강연은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치에서 중요했던 웅변술과 수사학을 가르치는데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들을 철학적 사유를 담지 않은 공허한 말장난이나 언어의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궤변론자라고 비난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로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고르기아스(Gorgias), 프로디코스(Prodicos), 히피아스(Hippias),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 등이 있다. 최초의 소피스트라 불리는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말로 진리의 주관성과 상대주의를 이야기했다.





핵심원리 뽑기

인식론 • (①)를 파악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

실재론 • 실재론: 인식 대상이 존재함
관념론 • 관념론: (②)만이 존재함

경험론 • 경험론: 인식의 근거를 경험에서 찾음
합리론 • 합리론: 인식의 근거를 (③)에서 찾음

① 외부 ② 관념 ③ 이유



핵심 확인하기

- ① 경험론에서는 선천적 관념의 존재를 인정한다. O X
- ② 관념론에서는 경험을 거치지 않고 관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O X
- ③ 합리론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지식까지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본다. O X
- ④ 합리론, 경험론은 모두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연구한 학문으로 볼 수 있다. O X



고난도 어휘

1

• 이성(理性):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임

• 감성(感性):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Training

1. 합리적인 인간은 (□이성 □감성)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논평한다.
2. 시인에게는 무엇보다 풍부한 (□이성 □감성)이 요청된다.

2

• 감성(感性):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 감각(感覺): 눈, 코, 귀, 혀, 살갓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 감정(感情):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느끼어 일어나는 슬픔, 기쁨, 좋은, 싫음 따위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

Training

1. 그는 사고로 하반신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2.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3. 그는 눈물도 흘리고, 너무 (□감각 □감정)에 사로잡혀 탈이다.

3

• 관념적(觀念的):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또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 감각적(感覺的): 감각을 자극하는 것

Training

1. 그 그림에서 새빨간 사과를 실제 사과와도 같이 (□관념적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2. 그는 매일같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와 같은 (□관념적 □감각적)인 주제로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4

• 관념적(觀念的):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또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 실천적(實踐的): 실제로 행하는 것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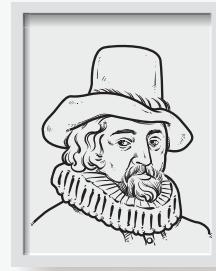
1. 그의 관념적인 태도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2. 나는 그의 그 실천적 의지 앞에 다소 무력감 비슷한 걸 느꼈다.



절대필수 학자

“베이컨”

Francis Bacon
1561 ~ 1626



경험주의의 선구자인 베이컨은 엄밀한 경험적 관찰과 이를 통한 지식의 획득을 중시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연역법에 기초한 철학은 추상적인 원리의 탐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험과 관찰에 의한 개별 사례를 비교하고 고찰함으로써 자연의 일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귀납법이 과학의 필수적인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과 같아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한다. 즉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偶像)이라고 부르고,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이들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상을 제거한 다음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公理: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자명(自明)한 진리의 명제인 동시에 다른 명제들의 전제가 되는 명제)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귀납의 개념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얻어 낸 올바른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교과서 다시보기

이와 반대로 대륙에서 발전한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 이 이성은 못하는 것이 없다. ‘ $1+1=2$, $34+56=90$ ’이라는 간단한 진리부터 시작해 극도로 복잡한 온갖 수학적 이론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성 덕분이다. 이성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온갖 진리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근거다. ‘ $856989 \times 874123 = 749113795647$ ’이라는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도 간단히 알 수 있다. 오히려 경험을 통해 확인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결과의 신빙성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01 다음을 합리론의 대표학자인 ‘데카르트’가 중시하는 것, 그리고 경험론의 대표학자인 ‘베이컨’이 중시하는 것으로 나누어보자. (4개씩)

감각, 관찰, 이성, 논리, 경험, 실험, 수학, 추론

- ① 데카르트가 중시하는 것: 이성,
- ② 베이컨이 중시하는 것: 감각,

02 다음은 베이컨의 저서 『신기관』의 표지이다. 과학을 상징하는 배가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의미하는 기둥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밑 부분에 적혀 있는 문구는 무엇일까?



- ① “배 없이도 왕래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 ②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은 더하리라.”
- ③ “이곳을 지나면 평화로운 사회가 도래하리라.”



문제로 확인하기

※ ‘이 책’의 저자에 대해 <보기>의 사상가가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책의 제1권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과 편견, 즉 네 가지 우상을 논박하고 있다. 제2권에서는 학문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귀납법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귀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는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감각적 경험만이 모든 관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모든 인식의 근원이 됩니다.
- ②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을 찾아내는 방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③ 오감을 과연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성을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④ 이성은 관념적 추리만을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은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⑤ 이성은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닌가요? 도덕적 선악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해결 Tip

Hint ① <보기>의 사상가는 데카르트이며, 책의 저자는 4대 우상을 제시한 베이컨이다.

Hint ② 비판적 주체(베이컨)와 비판 대상(데카르트)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자.

교과서 다시보기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과 같아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한다. 즉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偶像)이라고 부르고,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이들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상을 제거한 다음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로 확인하기

※ 서양 근대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찾고자 하였다.

(나) 수학에서의 공리(公理)처럼 이미 확인된 자명한 진리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개개 사물의 이치나 다른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해결 Tip

Hint (가)는 경험론의 경험주의 사상이고, (나)는 합리론의 이성주의 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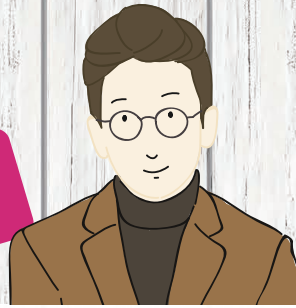
		진리 탐구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	
		예	아니요
개별 사례로부터 보편 원리를 도출하는가?	예	A	B
	아니요	C	D

- | | |
|-----|-----|
| (가) | (나) |
| ① A | C |
| ② B | C |
| ③ B | D |
| ④ C | D |
| ⑤ D | A |

교과서 다시보기

영국 경험론자의 대표주자인 베이컨은 소박한 차원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귀납법으로 개별적인 경험적 사실들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다. -- 이와 반대로 대륙에서 발전한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 이성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온갖 진리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근거다.

정규영씨의 배경지식



관념론에 의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우리 밖에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사물의 실제 본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물에 대한 관념을 가질 뿐이다. 가령 책상 위에 있는 파란 꽃병을 우리가 볼 경우 “파란 꽃병이 실제로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대신 “우리의 감각이 책상 위에 파란 꽃병이 있다는 관념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야 한다. ‘파란 색’, ‘책상’, ‘꽃병’이라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관념을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관념론을 처음 제기한 인물은 바로 버클리이다. 버클리의 유명한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된다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물질이나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관념이 만들어졌을 때에만이 그 물질이나 사건은 의미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누군가가 나의 따귀를 때렸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이 있어서 따귀를 때렸구나. 아주 나쁜 인간이다!” 라고 단숨에 그의 본질을 규정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는 무언가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저 따귀를 맞았다는 관념만을 인정하라고 한다. 그가 내 따귀를 때렸던 건 나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로 착각하고 때렸을 수도 있다. 따귀를 맞은 내가 관념만을 받아들일 뿐 그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은 덕분에 나는 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즉 착각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관념론에 의하면 사물이건 사람이건 본질이라는 것은 없다. 그저 그 사물과 사람을 경험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념만이 생길 뿐이다.





""존재'에 대한 입장"

이러한 이유로 버클리는 지각된 것만이 존재할 뿐, 사물의 실재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칸트는 외부에 참된 실재가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지만, 다른 실재론자들과는 달리 우리 바깥에 있는 참된 사물을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그 참된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이성은 감각, 경험, 주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이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이 다른 것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순수 이성이 필요하고 이 순수 이성을 통해 사물의 본질과 그 원인인 물자체를 파악해야 한다.

칸트 철학의 중심 개념. 인식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현상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물 그 자체. 선험적 대상이라고도 함



선험적(先驗的):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

순수이성(純粹理性): 경험 또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 인식 능력. 칸트 철학의 기본 개념